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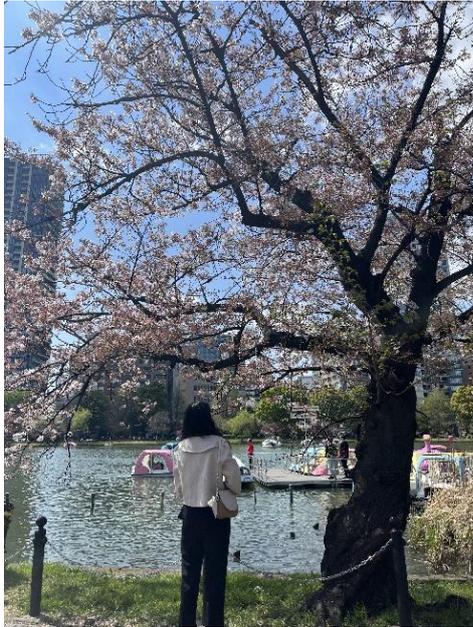
##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의 한 학기

동덕여자대학교

최유진

따뜻한 봄에 시작했던 유학 생활에 어느덧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왠지 모를 시원섭섭함이 물려옵니다. 낯선 곳에서의 생활은 불안과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이곳에서 약 6개월가량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추억의 한편이 된 것만 같습니다.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 가장 이루고 싶었던 것은 '도전적인 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익숙하고 쉬운 길을 찾기보다는 용기를 내 새로운 것을 탐구하려는 자세를 익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대상 수업만이 아니라 정규 전공 수업도 함께 수강했습니다. 오차대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으며 지식을 나누고 학문적인 교류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전부 일본어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언어론' 수업의 경우, 본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전공이었기에 더욱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일본어 능력 향상과 더불어 학문적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모든 과정에 의미를 두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문리융합데이터사이언스Ⅱ' 수업에서는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 해석해 보며 실질적인 분석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문화정보공학총론 수업에서는 데이터 분석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배우면서 장래에 어떤 업종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다도를 체험해 보고자 다도부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차와 화과자를 즐기고 싶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선생님께 직접 다도 문화에 대해 배우고, 부원들과 다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느덧 다도에 진심이 된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6월에 있었던 미나즈키 다도회에서는 처음으로 기모노를 입고 손님들께 차와 화과자를 운반하는 역

할을 맡았었는데, 유학생으로서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까지도 감사하게만 느껴집니다.

학업 외적으로는 가능한 많은 곳에 다녀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공강인 목요일에는 꼭 외출하기, 한 달에 1번은 여행 가기라는 저만의 목표를 세워 이에 충실하게 행동했습니다. 5월에는 나고야에, 6월에는 시즈오카와 오키나와, 7월에는 요코하마에 다녀왔으며, 평소에는 도쿄 내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저만의 시간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남은 1달 반의



시간 동안에는 오사카, 교토, 돗토리, 가나자와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가보지 못한 디즈니랜드나 하코네 온천에도 가볼 생각입니다.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의 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지도교수님이신 모리야마 교수님,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신 하

기와라 선생님 항상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주신 학교 관계자분들과 기숙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 뵈는 모든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학우분들께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